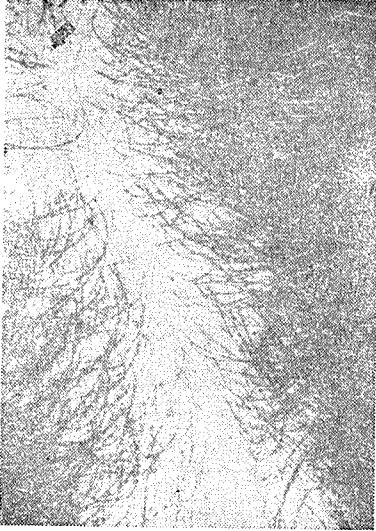


머리털은 왜 빠지나



<탈모된 모습>

머리가 빠진다. 빠진 머리가 나지 않고 매머리가 되지 않을지 염려가 될 정도로 머리가 빠지는 것은 왜 그럴까?

탈모증(脫毛症)이란 모발(毛髮)이 빠지는 질환을 말하며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은 광범위하며 우선 모발의 정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보자.

모발의 정체(正體)

모발의 기능(機能) : 모발은 피부의 부속기관의 하나로서 몸의 중요부분을 덮어 보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촉각의 감각기관으로 작용하고 외상(外傷), 자외선으로 부터 머리를 보호하며 피부와 피부가 접하는 부위(間擦部位)의 마찰을 적게하여 주는 외에 내분비기능의 이상유무와 비소(砒素) 연(鉛), 수은(水銀)등의 중독여부를 진단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모발(毛髮)의 종류 : 모발은 취모(毳毛)·연모(軟毛)·경모(硬毛)가 있으며 취모는 태아의 몸에 있는 아주 적은 솜털이고 생후 6개월 내에 교체된다. 연모는 솜털이라고도 하며 짧고 가늘고 연한 색깔로 몸전체에 있고 사람에게만 존재하며 음부, 겨드랑, 남자의 사지, 앞가슴에서는 사춘기에 경모(硬毛)로 교체된다. 경모(硬毛)는 길고 거칠고 진한 색깔을

하고 있으며 머리, 턱, 겨드랑, 음부 구간(軀幹)에 있는 장모(長毛)와 눈썹, 속눈썹, 코, 귀속에 있는 단모(短毛)로 나누어 진다.

모발의 분포(分布):

연모와 경모는 손바닥 발바닥 및 손가락매듭(指關節), 음경귀두(陰莖龜頭), 소음순(小陰唇)을 제외한 전 피부 표면에서 볼 수 있으며 연모는 여자에게서 경모는 남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모발의 성장(生長):

모발은 모모세포(毛母細胞)의 세포 분열(細胞分裂)에 의해서 생기는 실모양의 각화성상피조직(角化性上皮組織)으로 전신에 약 1백40만개가 있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 즉 성장기(生長期), 휴지기(休止期), 종기(終期)를 반복하는 모발의 성숙주기에 의해 자연히 빠지고 재생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10만개가 있는 머리털은 개개의 주기로 인하여 하루 평균 80~100개가 정상적으로 빠진다.

모발의 성장속도(生長速度):

이것도 모발이 분포되어 있는 부위에 따라 다르며 긴 모발은 빨리 자라고 짧은 모발은 늦게 자라는데 참고적으로 성장속도를 부위별로 보면 두

발(頭髮)은 0.35mm~0.37mm 액모(腋毛)는 0.3mm. 음모(陰毛)는 0.3mm. 팔의 모발은 0.2mm. 눈썹은 0.16mm이나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 피부온도가 높은 사람, 좋은 영양상태에 있는 사람에서는 빨리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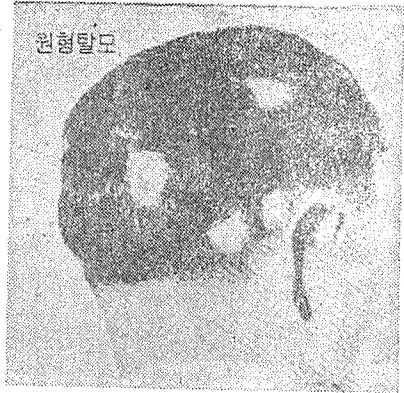
모발생장과 홀몬:

남성홀몬이 모발생장에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성홀몬과 뇌하수체홀몬은 간접적으로 모발생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의 갑상선홀몬도 모발생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몸에 있는 눈썹, 속눈썹 등은 홀몬의 영향을 안받고 두발, 액모, 음모, 턱수염, 가슴털, 팔, 다리의 털은 홀몬의 영향을 받는다. 또 자주 세발(洗髮)하는 것은 두발에 해롭지 않으나 너무 거칠고 과도한 빗질은 해롭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발이 자라고 빠지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머리를 빗을 때마다 빠지는 데에 대하여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본다.

원형 탈모증(圓形脫毛症)

이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두발의 탈모증으로 처음 한개 내지 수개의 원형 및 타원형의 탈모반(脫毛斑)이



갑자기 생기며 점점 주위로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탈모된 부위의 경계는 뚜렷하고 그 부위의 피부는 매끈매끈하고 중심부가 약간 들어간 것같이 보이며 염증과 병적증상이 없어서 본인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의해 발견될 때가 많다. 탈모부의 크기와 수는 일정치 않으며 계속해서 생길때도 있다. 이때 탈모가 시작된 모발을 하나씩 잘 보면 모근하부(毛根下部)가 가늘게 되어 소위 감탄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탈모부가 커질 때는 주위의 모발도 빠지기 쉽다. 드물게는 탈모반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서 서로 융합하여 머리 전부 뿐 아니라 눈썹, 액모, 음모까지도 빠질 때가 있으며 이를 전신성탈모증(全身性脫毛症)이라고 한다.

원인 : 어느 연령에도 올수 있으나

젊은 사람에서 자주 볼 수 있고 남녀 차는 없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치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것이 생각되고 있다.

첫째 : 정신적인 요인으로 정신적 자극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사업실패, 가정불화 등으로 오는 불안, 초조, 고민, 충격, 욕구불만 등 또 학생의 경우 시험 등으로 인한 수면부족, 긴장, 불안 등이 중요원인이 된다.

둘째 : 유전적소인(遺傳的素因)으로 환자의 10~25%에서 가족적인 발생을 볼 수 있다.

셋째 : 두부 외상에 뒤따라 일어나는 수가 있다. 또한 유인(誘因)으로 충치, 축농증 등의 병소감염(病巢感染)과 내분비장애(內分泌障礙)를 들 수 있다.

치료 : 자연치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 내지 두개 정도가 생기면 치

료를 하지 않아도 시일이 지나면 두
발이 나온다고 안심하면 된다. 그러
나 3~4주간을 관찰한 후 자연치유되
는 경향이 보이지 않을 때나 병변(病
變)이 다른 곳에 새로 생겼거나 일단
치유된 병변이 다시 빠질 때는 바르
는 약과 먹는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
특히 전신성 탈모증은 장기간(2~4년)
을 요한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을 규
명하고 원인적인 요소를 제거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는 환경에 대한 변화
가 없이는 치료가 오래 걸리거나 재
발할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바르는 약으로는 첫째 맛사지 혹은
살리찌르산, 옥도, 체술신등 자극성
있는 약품을 발라서 국소로 자극하여
충혈을 일으켜 말초혈액 순환을 돕는
방법으로 과거부터 해오는 치료법이
나 별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둘째 부신피질 호르몬계통의 연고를 잘
문질러 하루 3~4회 바르거나 1일
1~2회 밀봉봉대요법을 하면 3~4개
월 후에는 모발의 재생을 볼 수 있다.
셋째 부신피질 호르몬계통의 주사를 탈
모부에 국소주사(局所注射) 하는 것
으로 1주 2회 정도로 5회를 해주
면 2~3개월 후에 모발의 재생을 볼
수 있다.

먹는 약으로는 주로 정신적 요인으
로 생기므로 신경 안정제가 투여되고
그의 부신피질 호르몬계가 투여되나
이들 먹는 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하에 투여해야 되므로
전문의의 지시를 받아 복용하여야 한
다. 또 몸에 병소감염(病巢感染)이 있
거나 내분비 장애가 있으면 이를 규
명한 후 치료해야 한다.

장년성 탈모증(男性禿頭)

이는 흔히 대머리라고 하는 것으로
머리털이 점차적으로 가늘어지면서
빠져 적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탈모(完
全脫毛)가 되는 병으로 이때 비듬도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탈모는 흔히 앞이마의 양측으로부터
올라가면서 빠지는 형과 머리꼭대기부
터 모발이 짧게 되면서 빠지는 형이 있
는데 때로는 이 두형이 동시에 올 때
도 있다. 이때 탈모부위의 피부는 매
끈하고 긴장성으로 광택이 있으나 임
증 증상은 없다. 대머리가 20~30대
에 시작하면 심하게 되고 50대 후에
발생하면 덜 심하다. 또 이는 남자에
국한되나 여자의 경우 남자와 같이
완전탈모는 없고 단지 머리꼭대기 부
분의 미만성탈모가 오거나 앞이마 양
측이 치켜 올라가는 탈모로 나타나고

대개 폐경기 이후에 온다.

원인 : 이는 모발생장에 있어서 정상인과 반대로 종기가 길고 생장기가 짧아져서 생기는 것으로 그 원인은 아직 확실치 않으나 유전질환임에는 의심이 없다. 첫째는 유전설로 대머리는 유전인자에 정상적인 남성호르몬이 있어야 일어난다는 것이다. 대머리는 정력을 표시한다든가 남성호르몬이 과잉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 즉 아무리 남성호르몬이 과잉하게 있어도 유전인자가 없으면 대머리가 되지 않는다. 둘째는 영양장애설로 두피의 과도긴장에 기인하는 혈관, 임파관의 순환장애가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세째는 지루설(脂漏說)로 비듬이 많이 수반되어 탈모가 된다는 설이나 최근에는 큰 관련이 없다고 한다.

치료 :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또 근치도 불가능하나 치료를 하면 탈모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가 있다. 우선 환자에게는 유전으로 온다는 것을 이해 시켜야 하고 머리에 비듬이 있으면 1주에 2~3회 유화 셀레늄이 함유된 샴푸로 세발하여 비듬을 없애도록 한다.

바르는 약으로는 두피(頭皮)의 과도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의 개선을 목적으로 맞사지를 하나 큰 효과를 볼 수 없으며 그외 부신피질 호르몬제 연고를 1일 3~4회 문질러 바르면 좋다. 또 남성호르몬 연고를 바르면 일시적으로 재생을 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것 역시 의심스럽다. 먹는 약은 효과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으며 의과적으로는 모발이식수술(毛髮移植手術)을 한다. 끝으로 대머리로 인하여 사회적, 미용학적으로 지장을 가져 올 때는 가발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그외에 탈모가 부분적으로 오는 불완전탈모증은 원병이 치유되면 모발의 재생을 볼 수 있으며 대개 어떤 독소가 모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탈모가 오고 모모(毛母)가 파괴 되지 않으므로 모발의 재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완전탈모증은 모모까지 침범되어 모모가 파괴되므로 모발의 재생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들 완전탈모증의 치료는 약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의과적으로 적은 것은 절제하고 큰것은 모발이식 수술을 한다.